

“우리집 네 식구 모두 포교사”

불자 가정 양성만세 가족

아버지 전주운불련 창립에 기여
어머니 소년·양로원 봉사 열심
장남 파라미타 학생범회 지도
차남 한불어린이범회 이끌어

결혼한 부인 김명자씨 덕분, 김씨는 서로의 종교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절에 다닐 것을 특별히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인의 모습을 보며 감동받은 양씨가 스스로 따라주었다는 것. 김씨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소년원과 양로원 봉사는 물론 금산사에서 각종 수련회가 열릴 때면 두팔 걷어붙이고 공간간 일을 도맡아 한다. 남편 실상사 농장에서 나오는 무공해 채소가 판로가 없

어 난패를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실상사에 직접 연락을 했다. 매주 일요일이면 김씨는 전북불교회관에 좌판을 벌여 놓고 실상사에서 갖고 온 농산물을 판다. '실상사 채소가 깨끗하고 맛도 좋다'는 주위의 칭찬이 봉사료를 받는 것보다 기쁘다고 한다. 어릴적부터 부모님의 불심깊은 모습을 보고 자란 탓일까. 창주와 창민군 역시 요즘 아이들답지(?) 않게 의지한다. 창주와 창민군은 모두 한불어린이회와 파라미타 전 주부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지난 해 파라미타 전부연합 기장을 맡았던 창주군은 지난 2월, 고3 진학을 앞두고 스스로 3천배 기도를 올렸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바람이 기 보이는 각오를 다지고 싶었어요. 7시간 정도 걸렸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자 고3 생



창도 합들 것이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창주군은 고3이 되면서 학업에 전념하느라 지금까지 해오던 많은 활동을 접었지만 시간 내 일주일에 한번씩 파라미타 학생범회를 지도하고 있다. 창민군도 한불어린이회 회법을 이끌어가는 등 어릴적부터 키워온 불심을 후배들에게 회향하고 있다. 양씨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니 몸도 마음도 자연스럽게 편해지고 아이들도 바르게

◇네 식구가 모두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는 양성만세 가족. '모범불자로 소문이 자자하다.'

명사들의 건강비결 ⑬



김우조 <토향회 회장>

"나이 아흔은 돼야 건강 얘기를 하지. 이제 겨우 칠순 넘었는데 무슨 건강비결이냐"고 김무조 박사(72·토향회 회장, 국문학 박사)는 건강에 대해 무심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안좋다 하는 분별심을 일으켜 본적이 없어요. 담배만 해도 하루 한갑은 피우는데 담배가 몸에 안 좋다는 의식조차 없어요. 건강에 대해 이런 저런 다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생활합니다."

향토문화연구소와 토향회를 창립해 고향 사랑하기, 민중 문화 사랑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김박사는 대학원 강의, 집필, 초청강연 등 바쁜 생활로 나이를 잊고 산다. 토향회에서 두달에 한 번 가는 답사는 17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있다. 또한 신라불교 속의 스님, 임금, 공

분별심 없고 무심하면 절로 건강 하루 2번 '지압사위' 유일한 운동

민을 재조명하는 3부작을 구상하고 <신라불교 신라스님>이라는 저서에 이어 <신라임금 박·석·김>(가제)을 집필 중이다. 과중해 보이는 이런 일들조차 김박사에게는 밥먹고 잠자듯이 욕심없이 해 나가는 일과일 뿐이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불교방송이 끝나자 잠자리에 드는 김박사는 하루 2번 꼭 사위를 한다. 사위를 때는 자신이 개발한 혈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얼굴과 뒷목을 손으로 때린다. 김박사가 20년째 하고 있는 자신의 유일한 운동인 독특한 사위법이다. 아침식사는 녹즙, 우유 등의 가벼운 마실거리로 족하다. 일과 학문에 대해 욕심이 많을 것 같지만 김박사가 무엇보다 강조하는 것은 욕심을 없앤 마음의 평정이다. 몸의 건강은 마음의 평정을 따르고 마음의 평정은 욕심을 없애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지론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를 없애버리고 고요한 상태에서 드는 '적멸'의 마음상태를 성취하면 건강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장수술 때 외에는 아직 한 번도 병원에 간적이 없는 김박사의 건강은 건강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조차 놓고 하루 하루 일상에 충실한데서 오는 보너스처럼 보였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apia.com)

김정은 기자 (jekim@buddhapia.com)

“여성불자 보살공동체 조직”

여불련 '21세기 여성불자 역할' 세미나

통일·복지등 사회참여 확대 제안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모주)는 4월21~22일 정주시 대한불교 수도원에서 제3회 여성불자 지도자 양성 연수교육을 주최하고,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사회적 배경'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연가영 교수(동국대)는 '21세기 여성불자의 역할과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불교계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불자의 활동을 좀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조직화와 여성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교수는 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조계종의 '깨달음의 사회화운동'과 관련, 여성불자의 역할과 실천목표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연교수가 제시한 실천목표는 먼저 여성불자도 불교계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보살도의 실천으로 사부대중의 의식개혁, 종단의 제도개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하며, 둘째로 분단의 아픔인 민족고(民族苦)를 극복하고 통일정도를 실현하는 통일운동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 또 인류복지 불교정토의 '보살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주체적으로 앞장서

야 한다는 것 등이다. 연교수는 "여성불자들의 사회참여 확대, 특히 정치분야의 참여 확대는 여성불자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며 "이를 위해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에 여성불자 후보를 많이 진출시키기 위한 여성불자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여성불자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며 "법률적으로 '여성불자발전기금' 조성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김종찬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은 "한국 사회의 경우 '여성의 정치참여'를 주장했던 인사들이 가장 보수적인 관변인사였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며 "한국불교계도 승단이 지니는 여성 편파적인 집단편견을 불식하지 않는다면 승단과 여성불자들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성문제의 사상적 기원과 한국여성정책'에 대한 이영애 교수(단국대)의 발표와 토론도 함께 진행됐다.

김정은 기자



명성여고에 나뉜 청동 관음보살상

종립학교로는 처음으로 명성여고(교장 우하수)가 교정에 '관음성상(聖像)'을 봉안한다.

17일 교정에 봉안될 '관음성상'은 높이 2m(좌대포함)의 청동 관세음보살반가상으로, 불모(佛母) 이상배씨가 제작하고 불교 어머니회인 수심회(회장 이미자)의 120여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온 2천여 만원을 불상 제작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기탁해 마련됐다.

김정은 기자

청소년 단선

환경 백일장·사생대회
청정국토만들기본부

청정국토만들기운동본부(회장 성태스님)는 '청소년 통일과 환경 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9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개최한다.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일반 부문으로 나눠 참가할 수 있다. 접수는 당일 행사 본부에서 받는다. 입상자 발표는 6월1일. (02)722-7552

제1회 어린이 그림대회
광주불교교육원

광주불교교육원(원장 영조스님)은 9일 무등산 증심사에서 제1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며 참가비는 무료. (062)228-9098

충남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충남 옥련청소년육성개발원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푸른 오일' 교계 행사 다채

백일장·인형극·효도관광 등 눈길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교계 복지관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한 다채로운 행사를 벌인다.

올해 어린이 날 행사는 단순한 먹고 노는 차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줄만한 문화행사가 많은 것이 특징.

부산 낙동종합사회복지관은 4일 영화상영을,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은 5일 거리에서 얼굴에 그림그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모전사회복지관이 5일 개최하는 백일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교계 어린이날·어버이날 행사

복지관	어린이날 행사	어버이날 행사	전화번호
강북장애인복지관	-	어린이 하루 나들이(20일경)	(02)989-4214
김동중사회복지관	어린이 놀이마당(4일)	민속공연 경포전체(7일)	(02)985-0161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영화상영(4일)	(051)271-0560
상주종합사회복지관	민속어머님(20일경)	경포전체(8일)	(052)32-5887
인연덕유사회복지관	-	노년경 행사(5월중순까지)	(032)325-2161
대전서구노인복지관	-	공군군악대 위문공연(12일)	(042)488-6297
문경모전사회복지관	백일장(5일)	효도관광(8일)	(0581)355-0108
분당사회복지관	즐거운 우리들 세상(1일)	노년본간체(19일)	(02)817-8054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노인위안체(7일)	(0662)652-4242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가족 이별로 돌아오기(5일)	은빛어머님축제(5월중순)	(0392)31-6761
송원종합사회복지관	인형극 공연(3일)	노년잔치(8일)	(062)941-8248
양지마을	가족 날(7일)	-	(0415)682-7003
역삼테크노인복지센터	서울대공연 나들이(7일)	-	(02)564-9294
옥수종합사회복지관	-	효도 잔치(7일)	(02)2282-1100
자양사회복지관	-	경동팔도인 불-놀이(7일)	(02)458-6796
제천장애인복지관	소풍(5일)	효도관광(4일)	(043)652-0900
화산사회복지관	-	노년무료 합동결혼식(7일)	(0562)248-6165
한솔종합사회복지관	-	한솔어르신 잔치(3일)	(0342)716-4215

소리없이 팔리는 책

그러나

깨달음의 꽃을 피우는 책

주머니 속 대장경

30C의 창조자 보르헤스 그의 사상적 기반은 '불교'였다.

'화 갈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처로 여기는 티베트인들의 성전 '菩提道次第'

향유한 우리의 교육현장에 던지는 부처의 음성 '선상천하유아독존'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숫자들... 그 깨침의 묘리를 본다.

모든 중생에게 불성(佛性)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성불할 수 있을까?

조선 시대 선사 41인의 선사 모음집

허운(虛雲) 화상의 참선 수행 요결

한글 계대를 향한 선(禪)불교 강의

101 - 교리 입문편
보르헤스의 불교 강의

201 - 생활불교편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502 - 문화·학술편
부처님 말씀대로 가르치세요

102 - 교리 입문편
법수로 배우는 불교

501 - 문화·학술편
불성이란 무엇인가

401 - 문화편
허공의 딸꼭질

301 - 선(禪)
참선요지 (參禪要旨)

303 - 선(禪)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일리아사 푸라도 공자, 김홍근 편역 36 변형 24쪽 / 값 5500원

조텔 스님 편역 66 변형 178쪽 / 값 4000원

김종서 지음 66 변형 182쪽 / 값 4500원

이재열 지음 66 변형 199쪽 / 값 4500원

전치수 지음 66 변형 199쪽 / 값 4500원

이종진 지음 66 변형 282쪽 / 값 5000원

허운(虛雲) 화상 법어, 대성(大聖) 스님 옮김 66 변형 276쪽 / 값 5500원

현정조 지음 66 변형 336쪽 / 값 6000원